

# 시총 상위 대형주가 만드는 변동성

KOSPI 8,471pt (+3.3%), KOSDAQ 909pt (+2%)

## ① 해외 사항 미국 휴장, 잡음은 존재하나 협상 진행은 ing

- 미국 주식시장 하락(S&P500 -1.4%, 나스닥 -2.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7.9%). 국제유가는 안정화 지속됐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 전일 한국 반도체주의 급락이 미국 시장에 영향. 세계 주식시장에 영향력 커진 한국 주식시장

## ② 수급 리밸런싱 수급 변동성 속 9천피 사수·천스닥 붕괴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2.6조, 외국인 -4.7조, 기관 +1.9조원 순매수. 외국인 대형주, 전기전자 중심 순매도 - 개인(+금융 투자)가 매물 소화하는 현상 지속

## ③ 특징업종 마이크로 실적 대기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 반등

- 코스피 상승 종목 516개 Vs. 하락 종목 367개. 코스닥 상승 종목 883개 Vs. 하락 종목 786개. 낙폭 과대 헬스케어 업종 양지수에서 동반 반등한 가운데 삼성전자(+9.8%) 등 대형주 반등. 과거 씨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대부분 지수 반등했던 경험

## ④ 이벤트 25일 마이크로 실적, 26일 PCE 물가 주목

- 1) 마이크로 실적(25일 오전 5시 30분)

## ⑤ 상황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역전 현상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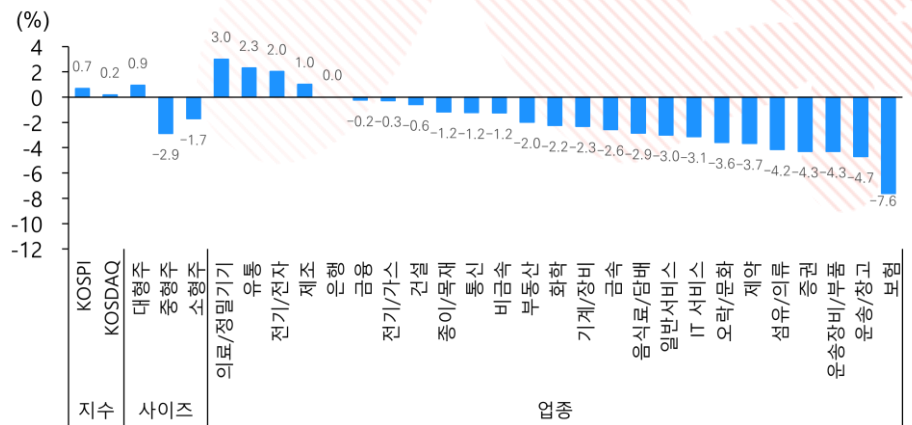
- 금일 KOSPI 3.3%, KOSDAQ 2% 상승. 전일 급락분 일부 만회했으나 지난 씨킷브레이커 당시처럼 V자 반등 수준은 아닌 낙폭 일부 되돌림. 내일 마이크로 실적이라는 큰 파도가 남았기 때문인 것이 이유. 장중 지수 변동성 역시 엄청남. KOSPI 장중 시가 +1.9% → 저가 -1.5% → 고가 +4.6% → 종가 +3.3%. 장중 낙폭 확대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이슈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성장 과실 공유 발언 영향인 것으로 추정.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 삼성전기의 현재 KOSPI 시가총액 Top4 중심 쏠림 현상은 지속 심화되며 오늘과 같은 해당 종목들의 낙폭 확대는 KOSPI 지수 전체 급락을 야기.
- 내일 마이크로 실적 발표 중요. 최근 마이크로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부진이 아닌 기대감 선반영으로 인한 셀은 매물 출회. 그러나 그 시기가 매수 기회였다. 현재 한국 반도체가 야기한 변동성 속 어느정도 낙폭은 확대됐다는 판단. 메모리 Super Cycle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가이던스가 제시된다면 2분기 한국 삼성전자 잠정 실적으로 가는 길도 탄탄 대로일 전망
- 삼성전자 금일 급반등 이유로는 9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보도. 특별경영성과급 주식 지급 합의에 따른 9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준비 중이라는 보도. 주주환원 및 수급 개선 기대가 시장 반영. 시가총액 1위 탈환
- 한국시간 25일 새벽 발표될 마이크로 실적, 확인 후 반도체 이익추정치 재차 상향 기대. 셀은 매물 출회되더라도 추세 훼손될 이슈로 인함인지 판단해볼 필요. 이후 2분기 실적시즌으로 연결될 현재. 호실적 반도체, IT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 재차 강조. 전일 급락은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수급 이슈. 주요 증권사, IB의 목표주가 상향 및 이익추정치 상향은 잇따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3,038	1,492
외국인	-25,466	3,115
개인	21,507	-4,622
거래대금	414,049	90,527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